



급하다 급해~ 30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전. 4회말 1사 만루의 상황에서 기아 2루수 안치홍이 삼성 김상수의 내야땅볼을 더블플레이로 연결하기 위해 1루주자 이흥련을 포스아웃 시키고 1루로 송구하고 있다. 이 공이 빠지면서 기아가 2점을 잃었다. /연합뉴스

‘수비’가 ‘비수’



수비에 웃었던 KIA가 수비에 울었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2차전에서 5-8 재역전패를 당했다. 전날 호수비 퍼레이드로 난적 삼성을 2-1로 잡았던 ‘호랑이 군단’이 두 번째 대결에서는 실수 연발로 무너졌다. 선발 송은범이 1회 삼성 외국인 타자 나바로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허용했지만 3회 삼성 선발 밴덴헤크가 흔들리면서 전세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선두타자 차일목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김선민의 좌전안타가 이어졌다. 번트를 준비하던 이대형이 재빠르게 강공으로 전환, 좌전 안타를 만들며 만루를 채웠다. 김주찬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를 얻은 KIA는 이범호의 몸에 맞는 볼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KIA, 악송구 등 실수 연발... 삼성에 5-8 재역전패 이대형, 이를 연속 멀티히트... 개막 2연전 1승1패

성공했다. 4번 나지완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어진 신종길의 땅볼로 3-2역전에 성공했다. 득점 지원을 받은 송은범이 3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 ‘마의 4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1사에서 이승엽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한 송은범이 박한이를 상대로 땅볼 타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을 잡은 2루수 안치홍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주자와 타자주자가 모두 세이프가 됐다. 몸에 맞는 볼로 이흥련을 내보내며 1사 만루. 송은범이 다시 한번 김상수를 상대로 병살타성 타구를 유도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도 2루가 문제였다. 2루수 안치홍이 유격수의 송구를 받아 주자를 처리했지만 1루에 악송구를 하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설상가상 나바로의 안타 때 좌익수 김주찬의 실책성 플레이까지 나오면서 4회 4실점을 하며 재역전을

허용했다. 3-6으로 뒤지던 6회 외국인 타자 필이 차우찬을 상대로 한국무대에서 첫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다시 또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경기는 삼성에 기울었다. 6회말 1사 2루에서 정형식의 타구가 좌익수 김주찬의 글러브를 맞고 빠지면서 2루 주자 김상수가 홈을 밟았다. 김주찬에게 이번에는 에러가 기록됐다. KIA는 9회 대타 이종환의 2루타와 김선민의 안타 그리고 이대형의 땅볼로 1점을 만회했지만 추가득점에 실패하며 5-8 패를 기록했다. 전날 김주형&이범호·이대형·김주찬·김민우의 호수비 열전으로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KIA는 하루 만에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하며 패배를 기록했다. 이를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한 투타자 이대형의 활약도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김주형, 벤치신세 위로 받자 “들어가 있어야겠네”

▲“중요할 때 하는 것이죠” KIA 나지완의 말에 웃음이 터진 덕아웃. 사연은 이랬다. 30일 타격 훈련을 끝내고 미소를 띤 채 걸음을 옮기던 나지완을 향해 선동열 감독이 “기분이 좋아보인다”며 건넌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감독과 대화를 나누던 나지완. 선 감독은 돌아서는 나지완을 향해 “그런데 4번 타자가 무안타여서 좀 그렇다”며 깔깔 웃었다. 전날 개막전에서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나지완은 4타석에 안타 없이 삼진 하나만을 기록했던 터다. 감독의

공격(?)에 나지완은 천연덕스럽게 “(4번 타자는) 중요할 때 하는 것이다”며 총총걸음을 옮겼고, 덕아웃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 보가 터졌다. 결과로 보면 나지완에게 중요한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지완은 4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지 못했다. 삼진은 3개나 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들어가 있어야겠네” 30일 선수들이 한참 몸을 풀고 있던 시간, 나 홀로 덕아웃을 지키던 선수가 있었다. 침울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내다보던 이는 내야수 김주형이었다. 김주형은 전날 1루수

로 출장했다가 무릎 부상으로 중도에 교체됐다. 2회 박석민의 땅볼 때 차일목의 송구가 한쪽으로 치우쳤고 다리를 뻗어 포구하다가 무릎에 무리가 갔다. 김주형은 끝까지 베이스를 지키며 값진 아웃카운트를 만들었지만 무릎 외측 측부인대 염좌로 엔트리가 말소됐다. 예상치 못한 페이스를 보였던 만큼 김주형 본인은 물론 주변의 안타까움은 컸다. 지나가는 이들이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네자 김주형은 “들어가 있어야겠다”며 머쓱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 “2연승 가자”

오늘 샌디에이고와 본토 개막전 선발 등판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원수 선발 류현진(27)이 31일(한국시각) 샌디에이고 팻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의 ‘미국 본토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29일 “류현진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본토 개막전 선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류현진이 샌디에이고전에 나선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이날 30개의 불펜피칭을 무난히 소화했고, 류현진의 구위를 확인한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을 31일 선발로 결정했다.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이 스프링캠프에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23일)호주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도 잘 던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4경기 1승, 16%이닝 5실점 4자책, 평균자책점 2.20을 기록했고 호주 원정으로 치른 애리조나와 경기에서는 5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 승을 달성했다. 샌디에이고는 31일 경기에 오른슨 앤드루 캐시너를 선발로 예고했다. 캐시너는 지난해 정규시즌에서 10승 9패 평균자책점 3.0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탈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